

먼지 하나조차 본래 부처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7>



빈 처 (貧妻)

아주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바라나시국의 왕자가 부왕의 미움을 사서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부왕은 손꼽은 아들인 금발이도 지니지 못하게 그야말로 발가벗겨서 아들 내외를 내쫓은 것입니다.

깊은 산 속으로 내몰린 왕자와 왕자비는 매일 같이 산으로 들로 다니며 근근이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사냥하러 나갔다가 운 좋게도 큰 짐승 한 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의기양양해 집으로 돌아와 포획물을 아내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어보, 오늘 수확이 아주 좋았소. 어서 불을 피우고 이 녀석을 살구려.”

아내도 모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서둘러 불을 피우고 숲에 사냥감을 넣었습니다. 한참을 삶다보니 자작자작하게 물이 졸아들었습니다.

“저런, 어서 가서 물을 길어와야겠다.”

아내는 남편을 지켜봐 주리라 생각하고 고는 물을 길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배가 너무나 고했습니다. 슬쩍 술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남편은 뚜껑을

열고 술을 들여다보다 그만 유혹을 참지 못하고 채 익지도 않은 고기를 꺼내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쯤 아내도 자리를 비운 틈에 배도 고팠고 모처럼 먹게 된 고깃덩이보다보니 남편은 아내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고 죄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야 물을 길어서 돌아온 아내. 그녀는 술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술 안의 고기가 어디로 사라진 거죠?”

아내는 짐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황당하여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나 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대답을 좀 들어보십시오.

“아? 잘 모르겠는데... 아! 맞다. 아까 보니 그 녀석이 되살아나서 숲뚜껑을 열고 제 발로 달아나버리더군. 숲 쪽으로 정신없이 도망치던 걸.”

남편은 딱 잡아떼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추궁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 완강하였습니다. 남편의 그처럼 진실하지 못한 태도에 아내는 질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을 묻지 않았고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부왕이 세상을 떠나자 남편은 복권되어 신하들의 간청으로 왕위에 올랐

가난이 깊어져 마음마저 팍팍해질때 가장 가까운 이와 나누는 교감은 큰 힘

있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도 더 이상 내게는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되지 못하였습니다.<불분행집경> 제12권

경전에서는 이 왕자가 바로 지금의 석가모니이고, 왕자비는 아소다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생의 일이 있었기에 아소다라는 신다르타 태자가 값비싼 장식물을 아무리 많이 선물해도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할 때 그 사람은 자기 본능에 가장 충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배고픔에 더 절실하고 자기변명에 더 매달리고 가까운 이에게 품는 서운한 감정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난한 이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가난을 탈래줄 수 있을까요? 아소다라의 전생 이야기에서 해답을 찾아보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솔직한 마음의 교감. 가난한 배우자를 향한 도망고 변치 않는 배려... 분명 이런 것들이 가난 속에서 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이미지(중국역경원 역경원)



수행자는 죽고사는 길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용스님. 스님은 청정계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평생 '선방수좌'로 살았다. 19살에 산문을 두드린 이후, 61년 동안 수좌로서의 본분을 한번도 잊지 않았다. 그 흔한 주지 소임도 맡지 않았다. 오직 화두만 들었다. 1970년에는 해남 대둔사 복암 옆에 손수 토굴을 짓고 13년간 몸과 마음을 혹독히 화두로 달궜다. '수도하다 죽으리라'라는 일념(一念)으로 사무치게 수행했다.

지용(智翁) 스님. 1월 19일 경남 하동 칠불사에서 만난 스님은 법명처럼 '지혜로운 늙은이'의 모습이었다. 눈꺼풀을 가릴 만큼 자란 백미(白眉), 그리고 삭발 머리를 덮은 잔설(殘雪)이 그대로인 노사(老師)의 그것이었다.



지용 스님

(하동 칠불사 운상선원장)

“어라도 수도를 마쳐야 해. 그때까지 댄 마음 먹지 않고 수행해 나가야 해. 이것이 수행자의 본분이야.”

노사의 일침이었다. 으레 묻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뜨겁했다.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 곧바로 여쭘었다.

“수행하는데 참선이 가장 유익해. 그렇다면 선이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최초의 선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아야겠지. 우주가 벌어지기 전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 그때는 막막하고 아득해 분별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지. 최초에 무엇이 벌어졌을까. 자연적 이치로 물기(水)가 갑자기 생기고, 그 다음에 바람(風)이 생겨 그 수분과 한 덩어리가 됐지. 그 다음에는 불기운(火)이 생겨 그 앞에 물, 바람 불기운과 한 덩어리가 됐어. 그리고 땅기운(地)이 생겨, 자연적 이치로 한 덩어리가 됐지. 사대가 한 덩어리가 된 것이야. 이 사대가 우주에 한 덩어리로 모여 밝은 '둥근 달'이 됐어. 실상도 헛된 상도 없고 유무의 관계하지 않는 '둥근 달'이지. 그대로 우주법계야. 이것이 선의 당체(當體)지. 그 당체는 사대가 뭉쳐서 화현했고, 이것이 우주가 됐어. 선은 이 둥근 달을 관조하는 거야. 그것을 보는 것이 선이지.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선이 아니거든.”

우주와 내 마음은 한덩어리

선쪽 이해가 되지 않았다. 스님이 말하는 '둥근 달'은 무슨 의미일까. 다시 여쭘었다.

“사실 선을 알기는 힘들어. 선에는 말이 붙지 않아 그 모습을 제대로 보기 어렵거든. '우주가 한 덩어리'라는 당체를 알면 돼. 그러면 댄 길로 나가려고 해도 댄 길로 가지질 않아. 또 분별할 물질도 없게 돼. 즉 상대가 없어진다는 소리야. 그러다보면 병통도 없어져. 화두가 잘 띄도 잘 띠는 생각이, 안 띠다고 해도 안 띠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거든. 오직 '그것뿐'이 돼.”

선에는 우주도 세계도 상대도 벌어진 것이 없다는 스님. 그래서 취하려 해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도 역대 많은 조사들도 이렇게 깨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오늘날의 불교현실을 지적했다.

을유년 설맞이 | 건강용품 특별기획전

희담보로 구매고객에게 희담석 좌복 무료증정 (2월28일까지)

■ 희담석 러리랙 + 어깨팩 세트 초특가 판매
· 정가 140,000원 → 88,000원

■ 희담석 방석
· [98,000원] → 178,200원
· 크기 : 385mm X 355mm
· 색상 : 회색, 살구색

■ 희담석 찜질팩(신형)
39,800원 → 38000원
· 기존제품의 두배반 이상의희담석원료 사용

■ 희담석 지킴이 20,000원
· 크기 : 65 X 65 X 10mm

■ 희담석 보로(보급형)

· 2,800,000 → 1,980,000

희담 원석 중 원석의 선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한 후, 수면시 자연스럽게 체온을 높이고 각종 지병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스님용 보로는 아담한 사이즈로 스님들의 좁은 수평체에 설치하기 적합합니다. 좌선용으로 활용 시간이 적어 신체대사가 원활치 못한 스님들의 신체 활성화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보로 사이즈 : (900mm x 1,900mm x 100mm)
- ▶ 희담석사이즈 : (600mm x 1,500mm) → (300mm x 300mm x 16mm) ⇒ 10개 원석의 두께 : 1.6cm
- ▶ 보로의 외피 : 사우드 (고급 인조가죽)
- ▶ 온도조절기 : 특수 내장형 슬라이드 방식으로 보로 뒷면의 전자파 원천 차단

■ 희담 보로(싱글)

· 4,000,000 → 3,200,000

희담 원석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에너지 파장의 방사능력인데, 육(肉) 등 타 제품의 경우 상온(常溫)에서의 파장은 극히 미미한데 비해, 희담석은 파장의 투과력이 높아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그대로 투과하므로 상온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40°C ~ 60°C의 온도로 범절도 할 수 있습니다.

- ▶ 보로 사이즈 : (1,000mm x 2,200mm x 100mm)
- ▶ 희담석사이즈 : (700mm x 1,800mm)
- 원석의 두께 : 3cm(300mm x 300mm x 30mm) ⇒ 12개 (100mm x 300mm x 30mm) ⇒ 6개
- ▶ 보로의 외피 : 이태라 천연가죽
- ▶ 온도조절기 : 특수 내장형 슬라이드 방식으로 보로 뒷면의 전자파 원천 차단

* 행사기간동안 서울,경인지역 설치비 무료, 그외 지역 10만원

마하몰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1. 인터넷 마하몰에서 삼성, 신한카드 5만원 이상 결제시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2004. 2월 28일까지)
2.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불자답력을 드립니다.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불보살 캐릭터 액자를 드립니다.

주문전화 **Mahamall.co.kr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지금은 역대 조사와 선사들이 자기식으로 해석해 법문하다보니, 선이 어지러워졌어. 하근기들은 제대로 선을 배울 수가 없게 됐어.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불법을 믿어도, ‘어떤 것을 믿어야 옳을까’ 하고 불법의 정체를 못 잡아내고 있어. 역대 조사와 선사들이 지껄어던 법문들이 불교를 망쳐놓았기 때문이야. 불교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오히려 불교를 망쳐놨어.”

그럼, 선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 스님은 ‘저술의 비유’를 들었다.

“저술에 근을 달 때는 한 쪽으로 기울지 않게 반듯이 달아야 해. 선수행도 마음을 잘 조절하면 돼. 너무 급하게도 늦게도 하면 안 돼. 마음만 조정하면 선수행은 순조롭게 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선수행법에 대한 법문은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하다보면 마진이 어김없이 오게 돼. 그때는 망상을 가만히 놔둬. ‘선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분별심에도 치우치지마. 잘 때도, 잘 못 때도 그대로 놔둬. 가만히 마음만 들여다보면, 망상이 선과 한 덩어리가 되거든. 즉 ‘무자’든 ‘이렇고’든 화두 들기 이전의 내 마음을 관하면, 망상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내 화두 ‘한 생각’ 만으로 걸어 나가는 길이 와. 반드시 그 길은 오게 돼 있어. 안 오는 사람이 없지. 그러면 망상이 그대로 떨어져, 화두 들고 나오는 ‘한 생각’ 만이 쫓 나오게 돼. 그때를 기림(起滅)이 끊어졌다고 하지. 그런 경지에 도달하면 화두를 타파했다고 하는 거야. 깨달았다고 하는 거지.”

禪 잘된다 안된다 분별 놓아야

스님은 ‘실상도 헛된 상도 없는 당체, 그 우연적인 사대(四大)가 한 덩어리로 뭉쳐 유무를 초월한 달이 됐다’는 화두를 들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림을 끊었다는 화두 타파는 ‘유무를 초월한 달’을 관한 것이다. 여기서 ‘화두를 타파했다’는 것은 본래 있는 달을 봤다는 뜻으로, 이것이 바로 실체의 당체다.

달리 말하면, 달을 향해 바로 보라는 말이다. 가리키는 손가락은 필요 없다는 의미다. 기림이 끊어진 데서 자신도 모르게 그란 의식이 없어지고, 우주법계가 자성체와 한 덩어리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자 화두가 이런 도리고, ‘이렇고’가 이런 도리라는 것을 아는데 아무런 막힘이 없다. 이 때를 견성했다고 한다. 삼라만상은 물론 먼저 하나도 모두 다 부처라는 것을 보게 된다. 모두가 ‘본래성불’임을 견성해서 ‘바로 있다’는 것



“수시로 할수 있는 염불선 수행이 바른 현대인들에게 좋다” 스님은 이 말을 당부하고 관정 선방으로 돌아갔다.

을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아이고, 부처님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인데, 괜히 쓸데없이 고생했구나. 부처님이 나를 애 먹인 사람이 아닌가’ 하고 말아야. 그렇다고 그 생각에 머물지는 않았어. 잠깐을 받았지. 화두를 바로 깨친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지.”

스님은 75세 때 구례 화엄사에서 오도송을 짓고,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을 찾아가 잠깐을 받았다. 이후 안거 결계날에 맞춰 용화사로 찾아가던 스님은 법문만 하고 나가는 송담 스님을 붙잡고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도송을 열른 내보였다.

“전하지 못하는 묘한 이치는(不傳之妙) / 모든 부처님도 알지 못했으니(諸佛不知) / 우주 만상 모두가 똑 같이 갖춰져 있어(眞契具足) / 봄날은 따뜻 한데 꽃과 잎이 피었도다(春陽花草)”

“스님이 ‘됐다’고 하더군. 웃으시더군. 송담 스님과 인연은 30년 전에 용화사에서 함께 살면서부터야. 법거량도 많이 했었지.”

스님은 이어 견성에 대해 말했다. 선수행을 마치는 것은 본래 자성을 보는 견성이고, 견성한 당체는 실상도 헛된 상도 없는 등근 달이 화두임을 본 것이라고 했다. 선은 그것을 바로 보는 견성법이라는 것

이다. 가령 돈오돈수의 뜻은 ‘본래 깨달아 있고 본래 뒤를 짓도 없는 근본 자리를 견성한다’는 것으로, 이를 보면 공부란 마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 견성한 다음에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스님은 그 다음 공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견성 이후 공부는 다생겁래 익힌 업장을 녹이고, 응무생사(用無生死)·생사 없는 도리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하는데 있어. 즉 깨달음 이후의 공부는 ‘뜻대로 모든 만법을 자유자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야. 이것을 보임(保任)공부라 해. 만법을 뜻대로 자유자재로 해 막힘없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보임공부를 마친 것이고, 이 때를 부처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 때를 불법을 다 공부한 단계라고 말하지.”

마음 관하면 망상과 선도 하나

스님의 말씀에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 간화선 수행법이 과연 현대인들에게 잘 맞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일었다. 공장 재가불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에 대해 여쭙다.

“물론 간화선 수행이 힘들어. 잘 되지를 알아. 그런데 염불선(念佛禪)은 재가불자들의 수행법으로 바람직해. 재가불자들의 생활방도로서, 염불선을 하루 한번 15~20분 정도, 아마타불을 간절히 불러, 일평생 아마타불을 부르면서 선을 하는 거지. 이것이 염불선이라 하는 거야.

염불선은 이렇게 하면 돼. 첫번째는 고성지(高聲杼)로 해야 해. 큰소리로 부르는 거야. 그렇게 익혀서 조금 힘을 얻게 되면 옆에 사람이 들을까 말까 하는 미성지(微聲杼)로 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 나가면 헛바닥을 놀리지 않아도 되는 비동설지(非動杼), 즉 헛바닥을 놀리지 않아도 저절로 염불이 나간다는 경지야. 자주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힘이 생겨, 그렇게 힘을 얻으면 금강지(金剛杼)로 들어가게 돼. 금강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염불할 것도 없고 선정할 것도 없고 하려고 할 것도 없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경지야. 그게 염불선이야.”

스님은 참선하다가 생명이 끊어지면 견성하는 것처럼 금강지에 들어가면 아마타불을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아마타불이 흥만하게 된다고 말했다. 간화선은 처음에는 큰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지만, 염불선은 처음부터 자신의 업을 살살 녹여 금강지로 들어가 선의 이치를 알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쉽다고 말했다. 재가불자들은 물론 수좌들에게도 바른 수행방편이라고 당부했다.

글=김철우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지연 스님의 스님이야기

효림 스님

모든 게 연애에 가린 듯 입담했다. 입담한 시절이었다. 그 안개를 걷어내고 새롭고 좋은 인연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여러 스님들이 뜻을 모았다. 종단은 자꾸만 피폐해져 가고 있었고, 이리다간 안 되겠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천년도 훨씬 넘게 이어져 온 한국불교가 지금 종단을 이끌고 있는 어리석고 탐욕에 찌든 모모한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들이었다.

현구백구십이년, 이러한 의견들이 수렴되어 여러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창립되었다.



그림 - 문병성

모든 게 연애에 가린 듯 입담했다. 입담한 시절도 무상하여 그렇게 오고 가지만, 한 사람의 생애는 그의 모든 행로로 판가름나게 마련이다. 효림 스님. 그의 순수 무구한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이 추운 겨울밤에 감히 붓을 들어 이런 이야기를 펼친다.

그를 본 지 한참 지난 어느 때. 나는 그가 파주

1992년 ‘실천승가회’ 창립 앞장 ‘실천불교’ 이사 맡아 실무 복귀

에 있는 보광사 주지를 맡아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여러 책을 펴낸 걸로 알고 있다. 스님에게 있어 이제 집필과 저작은 하나의 숙명처럼 그의 곁에 자리 잡은 듯하다.

효림 스님은 1968년에 인천 보각사에서 초전 스님을 은사로 하여 사미계를 수지했다. 이후 봉암사 선원과 해인사, 송광사 등에서 안거하며 두루 남자들과 교류했다. 그런 그가 나서길 꺼려하는 총무원의 그 어려운 역할을 어찌하여 자임하고 나섰을까? 그것은 우직한 그 나름의 소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요즘 도반들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재편하여 ‘사단법인 실천불교’를 새롭게 창립했다. 지선 스님을 대표로 하여 새롭게 태어난 실천불교는 앞으로의 우리 종단을 여러모로 신선하게 살펴나갈 것이다. 효림 스님도 이사를 맡아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의 우직함과 당당함이 소신껏 펼쳐지길 기대한다.

한편 청화 스님은 <실천불교>지에 축시를 보내 모두를 격려했다.

첫눈이 내리는 밤에는
바람이 없는 바다.
...
갑갑한 밤바다
멀리 누군지 잠 안자고
불 밝히는 섬을 향하여...
■ 봉화 청행사 주지

기자가 된 지음 스님

스님은 인터뷰 내내 좀처럼 틈을 주지 않았다. 말끝에 의심이 일어나도 묻기 무섭게 자르셨다. ‘왜 그리고 어떻게’로 머릿속이 짝 찢 기자의 들음들이 연신 걸렸었다. 대신 스님은 간화선과 염불선 수행법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주셨다. 문답에는 끝이 없는 열음알이도 허락하지 않는 선가의 전통을 뭍소 보여줬다.

스님의 수행이력은 송담 스님과의 인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송담 스님이 ‘지음 스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사람을 보니 늘 진실해보여 항상

찰나의 열음알이도 허락않는 선가 전통 보여줘

오기를 기다렸다’고 했다고 한다. 또 송담 스님에게 오도송을 보였을 때도 “뭐 아는 사람끼리는 말할 필요가 없지. 이심전심이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스님의 수행은 선원 대중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까마득한 후회들과 함께 안거 때 방부를 들이고 흔들림 없는 수행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80회향 증도가’를 쓰고 전국 선방에 3천여 권을 배포하신 스님은 요즘 당간 원력을 세웠다. 앞으로 100세까지 20년을 더 교화하겠다는 것. 전법도량을 지어, 사부대중을 가리지 않고 함께 공부하는 도량을 만들 생각이다. 이를 통해 부처를 만들어내는 선불경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1925년 경북 울진에서 나서 44년 금강산 마하연에서 월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 47년 상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은 스님은 해인사, 봉도사, 봉암사, 화엄사, 대둔사 북암 등 제방 선원에 서 정진했다.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어요?

蔘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역!

저는 강원도 정선 할양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삼삼 산악의 山蔘을 사서하여 만삼에게에 상공했습니다. 몇부만 전에 내 머리는 이이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더하여 일본에가 부인들만이 배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례되고 있습니다. 만삼은 특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후과도 구할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 에 자양을 확실히 합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은전에는 고려인삼보다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려산삼(長蘆山蔘)을 복용하고 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蔘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머니 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압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전신이 열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물에 부기가 빠졌다.
- 알파신이 나았다.
- 사강 율속이 없어졌다.
- 뱀비가 나았다.
- 열세가 좋아졌다.
- 기억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이프던 무릎관절이 열 이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에게는 시주할사하는 마음으로 열거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품 : 시종가 10우당 40단 원을 20단 원에 드리실지
오며, 단, 10단 단위 이상만 채택)가 가능함)이다.)

◆ 사면환사 :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팔자와 같은 상현에 감시드리는 마음을 담고있습니다.신약 포함

만삼은 만민상생것 10g 환기 1근대 상지구입스 생강 대추 감초

● 1Box (₩6900 - 20단입) ● 2Box (₩12900 - 35단입)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해 읍내리 329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 011-9242-8292
◆ 홈페이지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전자식 2중문 3중정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우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무위병),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목통, 요통(무위병),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뇌형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적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급 30,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주소 : 수원 성대병원 옆 전화 031)293-0806. 296-7806**

최 고 의 선 물

2005年新/製/品

스님用 滿行靴

본 제품은 수제화로 특수 제작되었습니다.

- 상표등록출원 제 2956호
- 의장등록출원 제 35872호

■ 색상 : 회 색

■ 규격 : 215~290(mm)

■ 보급가 ₩60,000

■ 불자용 색상은 보라색, 흑색

■ 만행화(滿行靴)탈신 특징

- ① 발, 볼, 등 감안 스님 치수에 맞도록 수제화로 제작하였습니다.
- ② 겨울 동절기에 냉기를 차단하는 특수 바닥창 논스립 우레탄 소재.
- ③ 외부소재 극세사 천연 방수 원단으로 내부에는 특수털로 내장 제작.

※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만행화 www.manhaenghwa.co.kr

주문전화 TEL : (02) 927-5715 H.P : 011-9000-5715

충남 063-12-250427 예금주 : 구자민